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분석 - 인구교육의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

왕석순* · 전주람** · 류경희***¹⁾

전주대학교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시간강사** · 창원대학교 교수***

Analysis of the reasons why single women in their thirties or forties choose not to marry: - implications for population education -

Wang Seok Soon* · Jun Joo Ram** · Ryu Kyung Hee***¹⁾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Dept. of School of General Education, University of Seoul***

*Dept. of Family Welfare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arious reasons that might lead single women to choose not to marry.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ere arranged with 18 single women who met the criteria for the present research purpose. We considered only those responses of the interviewee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their reasons why they choose not to marry, whe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in three steps by methods of thematic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asons for which they chose not to marry could be grouped into three main clusters of themes which may be labeled as (1) themes centered on 'Myself', (2) themes centered on 'Family' and (3) themes centered on 'Surrounding Environments and Friends'. Among the first category of themes of 'Myself', we have found five sub-themes such as "Lack of emotional communication", "Not-found spouse meeting my criteria", "My personality", "Self-narcissism or self-centeredness", "False beliefs in marriage". As for the second category of themes 'Family', three sub-themes have been found including "Family of origin conflict", "Closeness to family of origin", "Comfortable daily lives". And for the final category of themes 'Surrounding Environments and Friends', there were found three sub-themes which include "Negative effects of married friends", "Emotional support system", "Changing social atmosphere". In all there are eleven sub-themes to consider.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 presented some conclusions on the reasons why single women in their thirties or forties choose not to marry. We also presented som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on population education and future research.

1) 교신저자: Ryu Kyung Hee, 20 Changwondaehak-ro, Changwon-Si Gyeongnam 641-773, Republic of Korea
Tel: 055-213-3542, Fax: 055-213-3549, E-mail: ryukh@changwon.ac.kr

2) 이 논문은 2013~2014년도 창원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ey words: 싱글여성(Single Women), 결혼(Marriage), 인구교육(Population Education)

I.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세계적으로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국가 경쟁력 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므로, 우리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도 인구문제에 관심을 표방하며 인구 증가에 대한 목표를 강구중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독신여성들이다.

저출산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의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2006-2010’의 보고서에서는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및 변화에 따른 결혼 연령 상승을 들고 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9.6세로 남성(32.2세)에 비해 2.6세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고등교육기회 확대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기인하여 1990년(24.8세)에 비해 4.8세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4).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9세 중 결혼하지 않은 비율은 2000년 27.4%에서 2010년 44.3%로 10년 사이 16.9% 증가했는데, 이는 미혼남녀가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Sisa Today Sisa ON, 2014). 현대경제연구원 이 지난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혼 남성의 경우 결혼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9년 69.8%에서 2012년 67.5%로 줄었고, 미혼 여성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31.8%에서 2012년 37.2%로 늘어(Sisa Today Sisa ON, 2014), 미혼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을 독신여성들의 몫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장기화되는 저출산의 우려와 여성주의적 가치의 대두에 따라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려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관심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증폭되고 있다. 특히 15세에서 49세의 가임기 중 출산에 가장 유리한 연령이며, 동시에 발달적 관점에서

도 결혼이나 출산과 관련한 활발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연령대인 20대 중,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의 여성들, 그리고 경제력을 갖춘 30-40대 전문직 미혼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분석은 저출산이 사회 최현안인 우리 사회에서 인구정책의 전환점 마련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53조원을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은 여전히 1.3명을 밑돌고 있다(Chosun Ilbo, 2014).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저출산 현상의 대책은 그간 정부에서 집중해 온 보육환경의 개선보다 오히려 결혼 장려로 전환해야 한다(The Korea Economic Daily, 2014)는 진단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2005년 1.70명에서 2011년 1.99명으로 상승했음에도 전체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가임기 미혼여성이 같은 기간 38%에서 41%로 늘어난 탓이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의 개선을 위해서는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확립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Lee, 2006; Wang & Jun, 2005, 2006) 인구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루는 싱글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의 분석은 최근 저출산 현상 개선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안되고 있는 여성들의 결혼 장려를 위해 결혼 기피 현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해답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의 교육을 통하여 저출산 현상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인구교육을 위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이 연구에서는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면접을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여기에서 분석된 연구결과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및 친가족적 가치관을 키우고자 하는 인구교육에 유효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 문헌 고찰

1. 싱글여성에 대한 개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사회적 용어는 독신, 미혼, 비혼, 싱글 등으로 다양하다. 독신의 사전적 의미는 '형제, 자매가 없는 사람', 또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구분된다(Minjoong Seorim, 1998). 즉 독신은 통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며, 결혼적령기를 지났으나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을 통칭하여 일컫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하지만 '독신' 혹은 '독신자'라는 표현은 자발적이고 자의의지적인 '독신주의자'를 연상시키며, 이에 따라 많은 비혼 남녀들이 자신이 '독신자'임을 거부하기도 한다(Kim, 2007).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또 다른 사회적 용어는 미혼인데, 이 역시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나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할' 수동적이고 미완의 상태를 의미한다(Kim, 2007).

이밖에 '미혼'이나 '독신'을 대체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비혼', '비혼 여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혼 여성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현재 결혼 상태에 있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되어(Shim, 2003), 적극적으로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에서부터 현재 결혼하지 않은 여성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Woo, 2001), 혼자 사는 상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함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혼'이라는 용어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동시에 '결혼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여 결혼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혹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이념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Shim, 2003). 결혼을 적극적으로 거부함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읽는 이로 하여금 '비혼 여성'과 '독신주의자'를 동의어로 상상하게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비혼'이라는 개념이 주로 여성주의 진영에서 등장하였고, 그들에 의해서 주로 사용되는 상황은 '비혼' 여성을 결혼제도에 비판적인 여성으로 상상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Woo, 2001).

한편, 신가족풍속도라 할 수 있는 '독신'을 두고 '자유를 택한 화려한 싱글'이라고 일컫듯이(Kim & Kim, 2005), 최근에는 독신을 '싱글'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Schwartz and Barbara(2006)는 싱글이란 이혼, 사별, 별거 등을 포함하여 현재 결혼 상태에 있지 않고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 하였고, Park(2010)은 싱글족은 혼자 살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 개인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는 사람, 즉 싱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신, 비혼, 미혼이라는 용어보다는 거부감 없이 많이 지칭되고 있는 '싱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아직 20대 여성은 결혼을 유보한 계층으로서 30대나 40대 여성과는 다른 연령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50대와 60대 여성 인구의 경우에는 발달 주기 상 성인기가 아닌 중년기와 노년기로 구분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싱글여성이라는 함은 30대와 40대의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과 결혼을 경험하였으나 현재 이혼이나 사별로 인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싱글이라는 지위는 같으나 결혼생활을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전혀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미혼 여성과는 다른 집단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혼자 사는' 미혼 여성, 즉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싱글 여성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상 독립은 결혼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 적령기가 지난 미혼자가 집을 떠나 독립하기가 쉽지 않기(Moon, 1995)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싱글 여성이라 함은 부모님과 생활상 주거 독립을 하였거나, 또는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30~40대 미혼 여성을 말한다.

2. 싱글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어떤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어떤 여성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 결혼이 오래된 인간이 만들어 낸 하나의 사회제도라고 볼 때, 어떤 여성들은 특별한 고민 없이 결혼제도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반면, 어떤 여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하고 싶어서'가 53.6%를 차지해 과반수를 넘겼다. 가정과 배우자에 의존하는 삶보다 자신만의 삶을 더욱 중시하는 현대 여성들의 의식을 잘 보여주는 결과다. 이 외에

‘주거 마련 및 결혼비용 부담(19.2%)’, ‘풍족하게 살 자신 없음(9.4%)’, ‘경력단절 우려(7.4%)’가 뒤를 이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꺼리는 여성들도 많은 것으로 보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시댁과의 갈등 우려(8.9%)’, ‘지인들과의 관계 소원 우려(1.5%)’가 있었다. 한편,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주거 마련 및 결혼비용 부담’이라고 응답한 미혼여성의 비율이 21.6%를 차지하며 기혼여성(16%)보다 5.6% 높게 나타났고, ‘풍족하게 살 자신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미혼 여성이 11.1%, 기혼 여성이 7.3%를 보임으로써 대체로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결혼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lyoseoul, 2015).

또한 결혼 기피 풍조가 확산되는 이유와 특히 여성들에게서 결혼 기피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의 가부장제 문화 특성 상 여성의 희생을 계속 요구되고 있는 점, 여성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경우의 증가, 과거에 비해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의 개인주의적 사고, 주택 구입과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담 등을 지목하고 있다(Maeil Ilbo, 2015).

한편,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20~30대 취업준비생 및 직장인 1,047명을 대상으로 ‘취업과 결혼의 상관관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남성의 79.0%가 결혼이 직장생활과 취업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대답한 반면, 여성의 54.4%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한 응답자 중 35.3%가 결혼이 ‘행복, 심리적 안정을 준다’고 말했고, 14.5%는 ‘책임감이 부여된다’, 6.9%는 ‘생활비가 감소된다’ 라고 대답했다.

반대로 결혼이 직장생활/취업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자 중 48.7%가 경제적 부담을 그 이유로 답했다. 22.1%는 자유상실, 21%는 막중한 책임감을 이유로 들었다. 결혼이 직장생활/취업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 중 여성들의 기타 의견(8.2%)으로는 ‘경력단절’, ‘기혼자 기피현상’, ‘육아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해 결혼과 육아에 대한 여성들의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Datanews, 2015).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싱글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가족 중심적 가치관보다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확대, 가족 및 지인들과의 관계 갈등과 소홀에 대한 우

려, 직장 등 주변 환경에서 기혼 여성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3. 인구교육의 개념과 그 효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구교육지원법(안) 제2조에 의하면 인구교육이란 ‘출생·사망 등에 따른 인구변화가 전체 인구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한 사회변동 현상, 결혼·출산 및 가족 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의 형성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학교 인구교육과 사회 인구교육’이라 정의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인구교육을 ‘가정,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인구 및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알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태도와 변화를 갖게 하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Yoo, 2012). 또 인구교육은 국가의 적절한 인구유지를 위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이해, 임신과 출산, 부모됨의 이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Lee, 2006; Kim & Seo, 2012; Kim, 2013).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인구교육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인구유지에 대한 필요성과 평등적인 성역할 가치관 및 바람직한 가족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교육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구교육의 개념과 목적을 토대로 몇몇 연구자들(Yoo, 2012; Lee, 2014)은 인구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Yoo(2012)는 초·중·고등학교 인구교육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결혼·출산·자녀관, 인구규모·구조·이동,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적 가치관, 고령사회에서의 세대 통합의식 등과 관련된 내용이 인구교육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Lee(2014)는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4개 대학의 강좌분석을 통해 인구교육의 내용분석의 기준으로 인간존중(인권, 평등), 인구(인구변동, 저출산, 고령화), 가족(변화하는 가족, 노인), 복지(지원제도, 직업), 인구교육(내용체계 및 교수·학습방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저출산 현상의 개선을 위하여 인구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인구교육의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는

수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Kim(2013)은 8개 대학의 인구교육 과목을 수강한 4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인식과 태도, 출산인식과 태도 등 4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수강 전·후 사전, 사후검사를 통해 변화된 경향을 탐색하고 있다. 그 결과, 인구교육 강좌를 수강한 이후 결혼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출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보였다. 한편 Hong, Kim, Choi and Park(2011)은 대학생, 초·중등 교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수행한 결과 인구교육은 결혼 및 자녀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반면 성역할가치관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Wang and Lim(2014)는 인구교육의 교육내용을 인구현상 및 인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저출산·고령화 정책, 가족 및 결혼, 자녀양육,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직업준비와 노후설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이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인구교육을 받은 대학생은 교육 전보다 교육 후 인구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인구교육 경험이 전반적인 인구교육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인구교육의 경험이 결혼 및 자녀가치관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개선을 위한 정책변화에서 인구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친가족적 가치관의 출발이 되는 결혼관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자료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인구교육의 경험이 결혼 및 자녀가치관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인 싱글여성은 연구자의 주변에서 본 연구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선정하는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심층면담의 특성상 자

기 개방을 할 의사가 없거나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자료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제공자 선정에서 정보제공자의 자발성을 우선적으로 중시했다. 정보제공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면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골고루 표집하였으며, 한 지역에 치우쳐서 정보제공자를 구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정보제공자들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 즉 내용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으며,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를 얻을 가능성이 크기에 서울·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권역으로 나누어서 정보제공자들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명의 정보제공자를 선정하여 면접함으로써 그들의 경험을 연결시킬 수 있고 한 참여자의 말을 다른 참여자의 말과 비교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 이는 타당도를 위한 초석이 된다(Lee, 2002). 정보제공자인 싱글 여성은 현재 30대와 40대이며, 결혼의 경험이 전혀 없으며,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면서 서울 경기 및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싱글여성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자료수집방법

심층면접은 미리 준비된 면접 가이드라인을 갖고 2009년 3월에서 4월까지 약 두 달간 실시되었다. 면접 가이드라인은 특정 주제의 개방형 질문을 던지고,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심화 질문을 던지는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면접자의 면접 태도, 질문내용, 질문 방식 등을 일치시키기 위해 연구자 간에 사전에 논의를 하였고, 가상 면접을 서로에게 해 본 다음에 서울·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3권역 별로 심층면접에 들어갔다. 심층면접의 장소와 시간은 대부분 대상자가 편안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곳과 시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다. 심층면접 시간은 한 사례 당 1~2시간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정보제공자의 사전 양해를 구해 녹음을 하였으며, 면접 이후 녹취한 자료는 모두 필사본으로 전환되었다.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Single Women

(N=18)

No.	Name	Age	Education	Occupation	Experience (year)	Income (One million WON/month)	Residence
1	An Hyeona	40	course completion for master program	Middle school teacher	18	350	Gyeongsang
2	Bae Hana	44	doctorate	Professor	9	350	Gyeongsang
3	Choi Jieun	38	university graduate	Sales and service	17	180	Seoul, Gyeonggi
4	Choi Yunjeong	40	course completion for master program	Nurseries director, Institute director	20	500	Gyeongsang
5	Han Hyejin	41	doctorate	Psychological counseling	13	200~250	Seoul, Gyeonggi
6	Kang Miyeon	35	high graduation.	Esthetician	13	130	Jeonlla
7	Kim Minhyeon	32	university graduate	Home tutoring	7	120	Jeonlla
8	Kim Sangmi	38	master's degree	institute director	10	200	Seoul, Gyeonggi
9	Kim Sangmi	42	doctorate	Professor	12	350	Seoul, Gyeonggi
10	Kim Seunghui	38	university graduate	Social worker	16	150	Gyeongsang
11	Ko Gyeonghui	38	doctorate	Professor	11	500	Jeonlla
12	Lee Huiyeon	37	course completion for doctoral program	Acupuncturist	10	450~500	Seoul, Gyeonggi
13	Lee Songi	36	doctorate	Lecturer(Uni.)	8	200	Jeonlla
14	Lee soojung	42	course completion for doctoral program	Lecturer (Uni.)	4	200	Seoul, Gyeonggi
15	Lee Yeonhui	41	course completion for master program	Counselors	7	100	Gyeongsang
16	Lee Yurim	36	university graduate	English Institute Director	3	600~700	Jeonlla
17	Nam Jinsuk	39	university graduate	Academy Instructors, Interior	16	180	Jeonlla
18	Park Jiyun	33	course completion for master program	Part-time work	5~6	90	Gyeongsang

* 위 이름은 모두 가명처리 하였음.

3. 분석 방법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자료분석 방법으로 주제별 분석법(thematic analysis), 내용 분석법(content analysis), 질문분석법(question analysis) 등이 있는데(Yang, 2000), 본 연구에서는 주제별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의 과정은 크게 3단계, 즉 면접 내용의 부호화 과정, 해체화 과정, 재구성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Chang, 2000). 이 과정을 따라 본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면접 내용의 부호화를 위해 정보제공자들의 면접 내용을 녹음한 것을 한글문서작업을 통하여 자료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면접 내용을 여러 차례 검토하면서 의미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571개의 목록 카드를 만든 후, 카드의 내용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만을 찾아 자료를 부호화하였다. 싱글여성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핵심 언어로 부호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공통된 답변이나 유사한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부호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분류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이야기를 각 항목별로 정리하고, 같은 항목 내에서도 또 다시 세분화하였다. 면접 내용의 부호화 과정과 자료의 해체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주제에 대한 최종 목록을 정하게 되었고, 주제별로 내용들을 구성하게

Table 2. The Main Contents of Sub-themes

(N=18)

Themes	Sub-themes	Main Contents
“My Story”	Lack of emotional communication	'I am feeling some emotional (communication) barrier (with him).', 'Fail to fall in love at first sight', 'Lack of passion, hot emotions, emotional comfort'
	Not-found spouse meeting my criteria	'I haven't yet found the one right person for me.', 'Likeness of personality type', 'Comfort of relationship', 'Liveliness and energy', 'Enthusiasm', 'Respectable men', 'Physical appearance', 'Economic stability', 'Lifestyle'
	My personality	'I prefer to be alone', 'Feeling anxious and uncomfortable with the opposite sex.'
	Self-narcissism or self-centeredness	'Fear of expanded relationship with e.g., the members of the origin family of future husband', 'Challenge of Work and Home(family)', 'Do not want to make too much sacrifice for my marriage', 'Self-realization is more important'
	False beliefs in marriage	'Marriage is like a gamble and it's my decision to make.', 'Marriage is a choice.', 'It's OK for me to live alone.'
“Family Story”	Family of origin conflict	'Negative memory of the original family (Bickering parents, Violence)'
	Closeness to family of origin	'Caring for sick parents', 'Close relationship to the family of origin', 'Mom like a friend'
	Comfortable daily lives	'My mom cares everything for me', 'So comfortable to be living alone', 'No pressure from parents or siblings for marriage.'
“Surroundings Environments and Friends”	Negative effects of married friends	'Friends giving up their personal lives, caring for the husband and family.', 'Friends living in financial difficulty after marriage.', 'Divorced friends', 'husband's affair'
	Emotional support system	'Strong emotional support system (friends, Groups, Movie clubs, etc)'
	Changing social atmosphere	'Social atmosphere turning more favorable toward the singles.', 'Marriage is not necessarily required', 'It is a single family (recognized as a family form).'

되었다. 즉 ‘나의 이야기’, ‘가족이야기’, ‘주변이야기’ 라는 3개의 대주제를 찾게 되었다. 나의 이야기에서는 통하지 않는 느낌, 내 기준에 맞는 짝이 안 보이네, 나만의 특성, 누구보다 날 사랑해, 결혼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라는 5개의 소주제를 찾았다. 가족이야기에서는 지긋지긋 우리 집, 끈끈한 가족관계, 편안한 일상이라는 3개의 소주제를, 주변이야기에서는 친구들의 힘겨운 삶, 정서적 울타리, 변화하는 사회분위기라는 3개를 소주제를 찾았다(<Table 2>).

이와 같이 주제를 찾는 과정을 통하여 싱글여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 낼 수 있었다. 자료 분석의 전 과정에서 공동 연구자간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IV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 가족 이야기, 주변 이야기의 3개 대주제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예증적 방식에 따라 서술하고자 한다.

1. 나의 이야기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중심으로 ‘통하지 않는 느낌’, ‘내 기준에 맞는 짝이 안 보이네’,

‘나만의 특성’, ‘누구보다 날 사랑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의 다섯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었다.

1) 통하지 않는 느낌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과 느낌이 통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한 눈에 뽕감’, ‘열정’, ‘뜨거운 감정’, ‘편안함’, ‘너무 좋은 감정’ 등을 언급하며,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눈에 뽕 가서 정말 느낌이 있고 진짜 사랑해야.
사랑하는데 조건도 좋은 사람과 사랑하는 게 가장 이성적인... (Kim Minhyeon)

...불론 그런 어떤 아주 뜨거운 그 간절히 원하는 감정.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나에게 그런 감정이 다시 찾아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Lee Huiyeon)

사랑이라는 느낌을 들여야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조건만 맞춰서 결혼하기엔 너무 인생이 좀 슬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Lee Songi)

그리고 이 나이에 막 어렸을 때같이 불꽃 튀는 사랑 막 이런 건 없을 거 같으니깐 친구같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Nam Jinsuk)

2) 내 기준에 맞는 짝이 안 보이네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기준에 확실히 부합하는 이성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기준이라 함은 비슷함, 편안함, 코드가 맞음, 에너지, 적극성을 띠는 남성, 존경할 수 있는 남성 등 자신들만의 고유한 파트너를 향한 기준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외모, 경제적 안정 등 외적인 기준과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결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싱글 여성들은 스스로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

제 짝으로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철이 없네요
조건, 따지는 것, 외모도 조금 괜찮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일 안 해도 될 만한 능력,
학벌도 좀 저보다 높아야 할 것 같아요 (Kim Minhyeon)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끝까지 갈려면 막 사랑 그런 운운하는 것보다 진짜 친구같이 편안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옷에 맞지 않는 옷 입고 다닐 때 불편하듯이 그런 거 말고 그냥 막 편하게 무슨 말을 했어도 응~ 받아주는 사람들 있죠. 내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음~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인정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Nam Jinsuk)

옛날부터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그러려면 그 사람하고 말은 잘 통하겠나...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도 저하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좀 맞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Ko Gyeonghui)

적극적인 사람이 이성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니까 그게 제가 항상 딜레만테요. 구식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저는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생각을 아직도 해요.
그니까 단순한 성에서의 남성이 아니라,
나에게 이성으로 느껴지려면,
뭔가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너한테 관심이 있다. 혹은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눈치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강한 적극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Lee Yurim)

3) 나만의 특성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성격적 특성이 이유가 되고 있었다. 거부함,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함, 이성이 불편함 등의 특성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 자신들의 성격적 특성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데 중요한 이유임을 알 수 있었다.

저는 그런 데 노력은 안 하는 것 같고, 들어오는 것도 내가 거부하는 것 같아요. (Choi Yunjeong)

...성격도 되게 크게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목표가 있으면 다른 것들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

싫증을 잘 내는 것도 사람에 대해서 싫증을 만나고 있으면요. 재미가 좀 없어지면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뛰하는 거야, 나는 이걸 목표로 살고 여기에 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 두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을 끈질기게 잘 안 만나는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혼자 있는 걸 별로 이렇게 힘들어 하지 않는 것들. 제가 만약에 혼자 있는 게 힘들었으면 누구든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있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오히려 사람들 하고 늘 붙어있는 게 힘들어요. (Ko Gyeonghui)

처음에는 좀 무뚝뚝한 편이죠. 제가 어쨌든, 이성과의 관계에서 무척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까요...

남자를 만나면 편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소개를 시켜주면 안 나갑니다. 제가 잘. 예, 그러니까 쯤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그게 불편했던 것이죠. 친구는 사실 많은 편이었어요. 학교 때는 남자친구는 사실 많은 편이었는데, 이성이 싫은 거죠. (Lee Huiyeon)

4) 누구보다 날 사랑해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는 자기애가 있었다. 여기에서 자기애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기를 꺼려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지 못할 것에 대한 부담감, 시댁 등 인간관계 확장에 관한 두려움, 자식들 뒷바라지에 따르는 체력에 자신 없음, 가사 일에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 결혼 후 자기만이 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신념,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결혼보다는 자신의 일과 자아실현이 더 중요하다는 등 자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무엇인가 희생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되어진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희생에 대한 두려움 이면에는 자기를 향한 애정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 해석되며,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결혼의 제도 안으로 들어가기에 꺼려하고 있었

다. 이와 같이 싱글 여성들은 결혼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자기만의 인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결혼의 삶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만의 인생에 대한 욕구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족 공동체의 핵심적 기능 및 가치에 대한 지지와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삶의 여건이 마련될 때만이 결혼을 반대시킬 수 있는 기회(Seoul Shinmun, 2015)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레스테지(Lesthaeghe)는 1960년대 이후 유럽에서 전개된 결혼 및 가족제도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출산에 대한 가치, 태도, 행위의 변화를 두고 제2의 인구학적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Eun, 2005). 제 2의 인구학적 전환론에 따르면 자녀중심의 가치관에서 자아실현이 중심이 되는 시기로 변화하면서 출산력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싱글 여성들이 자신의 일과 자아실현을 중요시하면서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결혼을 선택하지 않게 될 수 있음에도 적용된다(Yoo & Hyun, 2010).

<희생의 두려움>

저는 결혼에 대한 중압감이나 책임감이 부족해서 혼자 사는 것 같아요...

가족을 이룬다는 건 어느 정도 희생이 따르는 건데 전 제 개인생활을 너무 즐기다 보니까

가족이 생겼을 때 내가 희생하고 싶은 부분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저도 결혼 했을 때 남편 하나 뿐만이 아니라 시댁 식구까지 다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거 땀에 아무래도 결혼이 두렵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Lee Songi)

결혼을 한다면 상상에? ...

결혼의 삶에 대한 제 생각은 젊어서 아무것도 모를 때 라면 모르겠는데 몸도 어느 정도 건강이라는 게 아주 나의 것이 아닌 이상이라면 자식들 뒷바라지 할려면 좀 체력 쪽으로 돼야하는데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어요. 희생을 해가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예. (An Hyeona)

지금은 엄마랑 같이 사니까. 엄마가 이제 지금도 챙겨주고 그런 거를 옆에서 다 해주고 하는데.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제가 그 사람을 챙기고 이렇게 뭔가를

더 해야 되겠죠?
제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Kang Miyeon)

제가 집안일을 되게 등한시 하고 살아요.
치우고 싶을 때 치우고 먹고 싶을 때 하고
빨래도 하고 싶을 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조직화 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지 모르지만 남자가
빨래와 청소와 요리와 뭐 이런 것들을 과연
저는 별로 안 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녀가 제가 그런 거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니까 당연히 결혼하면 제 시간은 굉장히 많이 빼앗길
거란 생각을 해요. 시간과 에너지들.(Han Hyejin)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여자한테 너무 손해예요.
저도 학원하면서 학부모 엄마들을 보면 직장 다니는 엄
마들은 정말 장난이 아니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건 남
의 집 대 이어주려고 글세, 모르겠어요. 애를 너무 좋
아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행복하겠지만, 저는 결혼해서
그렇게 육아와 뭐, 여러 가지로 돈도 벌어야 되고, 그걸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
재로는 부럽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정말 돈을 잘 벌어서, 사
랑하지 않으면 정말 가치 없는 일들인 것 같아요. 소비
만 하는 존재잖아요. (Kim Sangmi)

결혼을 하게 되면 싱글에서 누렸던 좋았던 점들 좀 포
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포기해야 된다는 것에서
아직은 준비가 안됐다고 느끼고 있어요. (Park Jiyun)
...결혼에 대한 환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가족들과의 관계도 있고, 어울리
는 게 완전히 달라지죠.
물론 안정적으로 살 순 있겠죠. 반면에 잃는 것들이 있
죠. 자기만이 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 데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못할 수도 있구요.
(Kim Minhyeon)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결혼을 해서 일을 하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돈을
벌어도... 결혼생활이 갈등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육
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고 싸움도 하
겠죠. 그러면 생활이 행복하냐고요... 자꾸 갈등이 있는
데.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부럽지가 않았어요. (Kim Sangmi)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이 여성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서 보면 특히 그런 명절이나
그럴 때, 여성들은 특히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아, 내가 혼자 있는
게 참 편하구나. 라는 거를 그들을 보면서 느낄 때가
참 많아요. (Choi Jieun)

저출산요...아이들 양육하는데 있어서 남편이 애를 데리
고 있고 여자는 일에서 자아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
회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이지 여성만의 문제로 그런 식으로 여성에게 잘못
했다고 죄를 덮어씌우는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
해요. (Bae Hana)

5)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는 결혼
에 관한 신념들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결혼은
선택이다’, ‘결혼은 계약이다’, ‘결혼은 도박이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등 그들의 신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혼
에 관한 신념은 결혼을 삶의 필수조건으로서 생각하게 하며, 결
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과거의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즉, 결혼의 선택은 자신의 뜻인 것이다.

자기가 혼자 살아, 노후까지도 자기가 혼자 살아도 그게
편하면 그건 자기 선택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필수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Kim Minhyeon)

결혼은 계약이다? 결혼은 계약이다.
지금 제 상태가 조건적인 부분을 먼저 많이 생각을 하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계약이라고
성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어린 나이일 때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는 결혼은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40대가 넘어서니까 사랑만으로는 충족되지 어렵겠구나.

그래서 결혼은 계약이다 (Lee soojung)

결혼 안한 이유는 결혼하면요 결혼 좀 도박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Lee Yeonhui)

전 도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재고 있어요.

네, 결혼은 도박인 것 같아요. 잘 만나면 모고, 못 만나면 도고 (Kim Sangmi)

저는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독신주의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남자친구와도 이런 환경들이 좀 나가지거나 해답이 나오게 되면 결혼은 할 생각도 있고요... 근데 근본적인 거에는 독신주의는 아닌데 결혼을 굳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Park Jiyun)

2. 가족 이야기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가족을 중심으로 '지긋지긋우리 집', '끈끈한 가족관계', '편안한 일상'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었다.

1) 지긋지긋 우리 집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는 원가족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부모님의 티격태격하는 모습, 아버지의 폭력, 아기가 하기 싫은 부모님 모습 등 부정적인 부모 관계의 이미지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모의 좋지 않은 결혼 생활의 목적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밝혀졌다.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티격태격. 그래도 어느 부모나 다 티격태격하니까 그냥 뭐...

그런 얘기하니까 별로 환상은 없는 것 같아요.

(Kim Minhyeon)

그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 아기가 하기 이렇게 행복하게 살진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가족을 이루어서 사셨죠.(Han Hyejin)

일단 가장 측근. 결혼 생활을 보자면 부모님이겠죠?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편안할 때는 편안하신데,

아버지가 폭력이 좀 있으서가지고,

이렇게 막 가정생활이 저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Kang Miyeon)

어머니의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왔고, 아버지가 일단, 항상 배를 타고 있으니까 가족들과 뭐 융화되지 못하고... 가끔 왔다가나가 유리되는 느낌 있잖아요.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너무나 가족을 위하고 가족을 위해서 그 망망대해에서 자기는 그리워하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막상 와서 가족과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보일 때에도 있는 거예요. 이 가족들과 섞이면서 살 지 못했기 때문에, 뻘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을 보인다거나,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무의식속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Bae Hana)

2) 끈끈한 가족관계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위에서 언급한 원가족의 부정적인 측면과 대조적으로 끈끈한 가족관계, 즉 가족 관계에서 가족원 간의 응집력이 지나친 경우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글이기 때문에 편찮은 부모들 돌볼 수 있으며, 형제자매 관계가 좋아 현재 가족들과 왕래하며 지내는 생활이 결혼 후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 엄마와의 좋은 관계로 동반자로 지내는 경우 등 참여자들은 끈끈한 가족관계를 언급하였다.

부모님하고는 가까운 거리가기 때문에 자주 가는 편이구요. 특히 이제 제가 오빠가 있고 언니가 있는데 언니랑 어.. 자매편데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특히 엄마하고 언니랑 지랑 이렇게 사이가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 하고 지내는 것도 되게 행복하고, 자주 가는 편이고... 그러니까 결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생활들이 잘 안 될테니까..(Park Jiyun)

가족들을 보면서 내가 싱글이라서 다행이라고 느낄 때는 지금은, 음..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은 아닌데 그니까 몇 년 전에 오빠는 지방에 살고있구 너무 바쁘구 동생은 외국에 있는데 엄마랑 아빠가 많이 아프셨어요. 번갈아가면서 막 수술하시고 이럴 때, 병원 일에 막 신경쓰고 저는 음, 석사 때 한번은 학교를 쉬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직장을 그만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음, 결혼을 했으면 부모님 이렇게 아프신데 애가 들어구 남편있구 막 이랬으면 내가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Han Hyejin)

엄마랑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부대끼면서 싸웠는데요 지금은 엄마랑 친구가 돼버렸어요 어떤 관계를 한 번 탈피를 해서 과정을 뛰어넘고 나니까..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셨고요.. 저도 엄마에 대한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랑 나랑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송 여사랑 너무 좋아서 같이 있고 싶어요. (Kang Miyeon)

3) 편안한 일상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는 편안한 일상생활이 있었다. 의식주를 엄마가 챙겨주며, 혼자 살아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편안함,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결혼에 대한 압력을 넣지 않는 분위기 등 그들의 이러한 일상은 그들로 하여금 결혼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지금은 부모님이상 같이 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전혀 없어요. 결혼해서 사는 것 보다 편안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삶을 못 버리는 것이고, 부모님은 이제 나이가 드시고 몸이 불편하시니까. 안계시면 어떨까..이런 것 때문에 요즘 결혼하라고는 해

요. 그게 제일 걱정이죠. (Kim Sangmi)

제가 느낄 때 편하고 제가 생활할 때 별로 불편하지 않고 혼자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싱글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Lee Songi)

..결혼을 누가 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한 적도 없었고, 살지 말라고 한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에 비하면 집 안에서의 그런 압력이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도 전혀 그런 말씀 안하셨어요. 언니, 오빠들도 안했어요. 아무 말 안했었고, 물론 엄마는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시는데 저는 항상 남자 소개 시켜 안 시켜줄 거면 말을 하지 마라, 그니까 이제 뭐 결혼해야지, 올해는 뭐 이런 말 하는데 저는 별로 큰 생각은 없어요. (Ko Gyeonghui)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니까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예. 제가 좀 이상한가요?(Choi Jieun)

...저는 엄마랑 같이 사니까. 엄마가 지금도 챙겨주고. 그런 거를 옆에서 다 해줘요 (Kang Miyeon)

3. 주변 이야기

이 논문에서 주변이야기는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나와 가족을 제외한 환경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부분으로, ‘친구들의 힘겨운 삶’, ‘정서적 울타리’, ‘변화하는 사회분위기’ 세 가지로 나뉘었다.

1) 친구들의 힘겨운 삶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는 결혼하여 잘 살지 못하는 주변 친구들의 영향이 있었다. 참여자들의 결혼한 친구들은 싱글 때와는 달리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남편 내조를 하거나, 결혼하여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이혼하거나 남편의 외도,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 하는 친

구들이 있었다. 이러한 결혼 후 친구들의 버거운 삶을 경험하며, 그들은 결혼의 선택을 미루고 있었다.

저는 제 친구들도 보면 삶을 거의 이제 포기하고 그냥 육아라든지, 남편 내조에 다 올인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가.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Park Jiyun)

그니까 이제 최근에 몇몇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결혼을 하는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 서로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것 같은데, 한 10년 넘어서 이렇게 사는 애들을 보니까, 남편에게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했던 만큼 그런 걸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불만을 가지는 애들도 있고, 또는 남편의 외도나, 하여튼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문제를 일으켜서 이혼한 애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또는 이렇게 보면 저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 때문에 사는 것도 있고, 아이들 때문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사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때도 있어요 (Bae Hana)

지금은 부모님이 울타리가 되고, 울타리가 없다는 거. 친구들한테 물어요, 너 행복 하나 그러면 제 친구들은 다 너는 능력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현재는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 이래요.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가 됐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다 하나같이 그런 말을 하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Kim Sangmi)

2) 정서적 울타리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는 동호회, 영화 모임, 친구들 등 자신들만의 확고한 정서적 지지체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화 모임, 자신의 처지와 같은 싱글들을 만나는 등 참여자들은 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정서적 구축체계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러한 독신생활에 대한 여러 측면에 대해서 서울 친구하고 가장 많은 감정을 나누어요. 그 같은 싱글인 친구. 그 싱글을 비롯해서 그 만나는 대상관계가 음.. 어.. 깊이가 다 다른데요. 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고, 전화해서 만날 수 있는 가벼운 친구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영어공부를 하다가 만난 모임이 지금 10년이 넘게 지금도 연락해서 명절 때마다 봐요. 거기 뭐 남자가 다섯, 여자가 셋 뭐 이런 모임인데, 혹은 영화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은 지금도 연락을 해요... 저는 되게 오래된 친구들과 감정 상태를 나눴어요. (Lee Yurim)

주로 만나는 사람은 직장... 비슷한... 교수인데 결혼 안 한 여자들... 이제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석·박사를 한 친구들인데, 그 이유가 저희들끼리 통한다기 보다는 저희들끼리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개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칫 저희가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외국얘기를 하면 잘난 척 한다 이런 소리를 막 하세요. 우리끼리는 그럴 염려가 없잖아요. 저희끼리는 추억에 젖어서.. 왜냐하면 거기서 저희가 거의 8년, 10년을 있다가 왔는데 당연히 그리운 청춘을 거기서 보내고 왔으니까. 나름 우리도 그리워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다 신참 교수이기 때문에 겪는 게 비슷해서 많이 만나 얘기하는 것 같아요. (Ko Gyeonghui)

3) 변화하는 사회분위기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는 과거 전통 사회와 달리 점차 싱글 가족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기반이 되어주었다. 결혼이 필수적이라 받아들여진 과거와는 달리, 싱글을 하나의 가족 형태로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는 미혼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대 후반이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 너무 독신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될 수 있고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팽배된 것 같은걸 피부로 느껴거든요... 주위에서
뭘 오히려 더 많이 자유로워 졌어요.(Lee Yeonhui)

V. 결론 및 제언

이 장에서는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분류된 총 11가지(나의 이야기 5개, 가족 이야기 3개, 주변 이야기 3개)의 하위범주를 종합적으로 결론 맺고, 인구교육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며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나의 이야기’에서 분류되어진 5가지(통하지 않는 느낌, 내 기준에 맞는 짝이 안 보이네, 나만의 특성, 누구보다 날 사랑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를 통해 살펴볼 때, 종합적으로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우선 30~40대 싱글여성들은 결혼을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들(감정적 일치감과 파트너에 대한 조건들)로 인해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론은 그들이 배우자 선택을 함에 있어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와는 달리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들만의 기준점이 명확한 것으로 해석되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쉽게 결혼을 선택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혼자 있기를 즐겨하거나 이성을 거부하는 등의 자신들의 성격적인 특성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사회에서 한 개인의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인터넷 및 스마트 폰의 발달, 개인주의 가치관의 팽배 등 사회문화적 변동은 혼자 있음에도 만족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해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더불어 참여자들은 자신들만의 자유롭고 편안하며 독립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에 만족하며, 결혼 후 확대되는 관계망에 대한 두려움, 결혼 후 희생할 것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복합적인 요소들의 작용으로 인해 결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신념에 관한 것으로, 30~40대 싱글여성들은 과거 전통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가족의 개념과는 다른 신념체제들을 갖고 있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

는 결혼은 더 이상 생애 주기에서 넘어야 할 과제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과거 사회에서 결혼이 적령 연령에 도달하면 누구나 해야 할 과업이라고 여겨진 때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몫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의 싱글 여성들은 결혼의 선택 여부에 있어서 갈등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여, ‘나의 이야기’를 결론지으면, 싱글여성들은 삶의 통과의례의 하나인 제도적 결혼관보다는 개인적인 선택적 결혼관을 보다 철저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주관적 선택관이 분명하기에 각자의 삶의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혼자 사는 삶도 괜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족 이야기’에서 분류되어진 3가지(지긋지긋 우리 집, 끈끈한 가족관계, 편안한 일상)를 분석해 본 결과,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원가족에서 부정적인 경험(부모의 갈등, 아기가 하지 못한 모습 등)과 끈끈한 가족관계가 동시에 결혼을 선택하지 않게 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전자는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반면 후자는 선행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내용으로, 과도하게 가족원들의 밀착된 관계 역시 원가족에 머물러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편안한 일상(부모의 의식주 해결, 가족원들의 결혼에 대한 압력 없음 등)으로 인식하여,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생애 주기로 볼 때, 평균적인 결혼 적령기를 넘은 30~40대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지하여, 독립하지 못하는 현상은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는 가족생활주기의 주된 변화이기도 하다. 이처럼 부모에게 얽혀사는 썩어묵은 10년 사이 급증할 정도로 심각하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밝혀진 ‘주변이야기’는 자신과 가족을 제외한 환경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내용으로, 3가지(친구들의 힘겨운 삶, 정서적 울타리, 변화하는 사회분위기)로 분류되었다. 결혼한 친구들의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결혼보다 싱글의 삶을 선택하게 하였다. 또한 영화모임, 동호회, 같은 처지의 싱글 만남, 친구와의 대화 등을 통해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더불어 싱글 가족을 하나의 가족 형태로 인정해주며, 결혼의 압력이 과거보다 상당히 낮아진 사회적 분위기는 30~40대 싱글여성들이 과거보다 편안하게 싱글의 삶을 선택하는 이유로 작용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30~40대 싱글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

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친가족적 가치관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는 인구교육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우선, '사랑'과 '결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의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싱글여성들의 결혼을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설명된 '단 한 번의 통하는 느낌'은 결혼의 동기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기로 이루어진 결혼은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독일 태생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철학자였던 에릭 프롬(Erich Fromm)에 의하면 사랑은 단 한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결혼이 도박은 아니다. 결혼 당사자 간의 확고한 의지로 출발한 결혼은 결코 도박 같은 불안한 선택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구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낭만적 사랑관과 결혼관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함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둘째,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원가족의 부정적 경험과 마찬가지로 지나친 결속감도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부모들의 건강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부부교육의 내용이 인구교육의 내용에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건강한 부모세대 존재가 건강한 차세대의 부부를 견인하기 때문이다. 또, 끈끈한 가족관계가 싱글여성의 결혼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성인기의 부모와의 건강한 분리는 건강한 부부관계에서 비롯되므로 여기에서도 역시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이 인구교육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응집성이나 성인애착과 같은 추가 검사를 연구 대상자들에게 수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잉일반화의 우려는 있지만, 성인기의 부모와의 지나친 애착이 분리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부부교육의 내용도 인구교육의 내용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싱글여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사람들, 즉 부모나 형제자매, 친구 등의 행복하지 못하고 힘겨운 결혼 생활을 목격하거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싱글 여성들은 자신의 결혼을 고민하거나 결혼을 선택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혼 장려를 위한 인구교육에서 주변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싱

글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교육의 대상은 결혼과 출산을 앞둔 미혼 여성 외에 광범위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넷째, 싱글여성들은 자신이 가보지 않은 결혼의 삶에 대해 도박과 같은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도 한다. 실제 기혼자들의 결혼의 실상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지지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기혼자들은 자신의 결혼 생활과 출산, 양육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인구 교육에 포함시켜 싱글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싱글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여러 번 언급한 '편안한 일상', '끈끈한 가족관계',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정서적 울타리' 등과 같이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싱글여성들이 나타내는 라이프 스타일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또, 싱글여성과 대척점에 있는 싱글남성들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대비하여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싱글 남성들은 교육수준, 취업여부, 직업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결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싱글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 이후 출산, 육아 등이 취업과 양립하기 어렵고 결혼으로의 이행에 있어 교육, 취업과 같은 경제적 자원은 일종의 기회비용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결혼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Woo, 2009; Yoo & Hyun, 2010).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결혼 연기 또는 기피 이유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결혼 장려를 위한 인구교육에서는 결혼 이행 과정에서의 성별 차이를 동시에 검토해 보아야 하며, 일과 가족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역할 조정의 실패가 남녀의 결혼 이행에 있어서 어떠한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질적 연구 방법이 시사한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분석된 11가지 결과들을 대규모 양적 데이터의 수집을 통하여 재검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싱글여성들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중심으로 인구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저출산의 책임을 싱글여성들에게만 몰아 사회적 낙인을 찍으려는 것으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 연구의 시도는 가족 공동체의 핵심적 기능 및 가치에 대한 지지와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삶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인구교육의 시사점을 결혼을 하지 않는 이

유에서 찾아내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다. 인구교육은 장기간의 평생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가치교육으로, 가치관이 형성되는 아동기와 중·고등학교 시기는 인구교육의 적기이다. 아동기부터 인구교육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초등학교 실과교과 및 중등학교에서의 가정교과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랑, 결혼관이 길러져서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결혼률이 반드시 반등의 기회를 잃지 않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Chang Y-J (2000). Psychology for Health Care and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 13-24.
- Chosun Ilbo (2014). The Storm of Low Fertility in Korea - The Only Nation in the World That Has Fertility Rate of Below 1.3 Children in 13 Straight Years (among OECD member nations), 2014. 2. 28.
- Datanews (2015). For 54.4% of Women, “Marriage Is of No Help to My Work”, 2015. 4. 29.
- Eun G-S (2005). “Transition from Single to Marriag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02, 25-35.
- Hong H-S, Kim M-Y, Choi Y-H, & Park W-J (2011). The Effect of Population Education Program on Values of Marriage, Childbearing and Gender Equality among Unmarried Youth,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5(2), 152-165.
- Hlyoseoul (2015). For 4.4 Women out of ten “It Makes No Big Difference Whether You Get Married or Not”, 2015. 1. 5.
- Kim K-W & Kim T-H (2005). Qualitative Study on the Causes of Being Single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6), 61-79.
- Kim S-R (2007). *A Study on the Single Culture of the Highly Educated Never-married Women : Social Construction of New Life Cour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G (2013). The Effect of Population Education on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toward Marriage and Childbearing Among College Students. *The Institute for Korean Culture*, 55, 233-256.
- Kim H-G & Seo J-Y (2012). Factors Impacting on the Marital and Childbearing Willingn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Institute for Korean Culture*, 52, 175-206.
- Lee M-S (2002). Depth interview study.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8(1), 215-241.
- Lee S-J (2014).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Organization of ‘Population Education’ Lectures for Low Birth Rate and Aged Socie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2), 469-485.
- Lee S-S (2006). A Study on Impact of the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6(2), 96-140.
- Maeil Ilbo (2015). Newlyweds Should also Join Their Bank Accounts, 2015. 2. 23.
- Minjoong Seorim (1998). *Minjoong Essence Korean Dictionary*.
- Moon S-J (1995). Emergence of a variety of family types and change of demographic, socio-economic status of women, *Journal of women's studies*, 6, 25-99.
- Park M-R (2010). *A study on the marketing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Single Folk’ audience*.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Chung Ang University, Seoul, Korea.
- Schwartz & Barbara (2006). *Marriages and Familie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Seoul Shinmun (2015). “Why Are They not Getting Married?” 2015. 4. 30.
- Shim G-M (2003). *A Study on Korean Unmarried ‘bihon(非婚)’ Women : Concerning socio-cultural factors which influence unmarried women in their mid-thirty to late forty*.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Seoul, Korea.
- Sisa Today Sisa ON (2014). The Man Who Left Me in Love, Why Did He Give up on Me?, 2014. 9. 13.
- Statistics Korea (2014). *2014, Life of Women from Statistics*.
- The Korea Economic Daily (2014). How to Get Prepared for Low Fertility Society, Focus on Childbearing Women. 2014. 7. 2.

- Yang O-G (2000). Qualitative Research on the Concepts of Family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 69-99.
- Wang S-S & Lim Y-M (2014). The effects of population education on the recognition of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4), 98-121.
- Wang S-S · Jun M-K (2005). *Supplementary Instruction Materials (for teachers) - Getting Prepared for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Ministry of Education.
- Wang S-S · Jun M-K. (2006). *Development of Guidance Materials on Revision of Textbooks Related to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Woo E-J (2001). *A Study on the Repression and Flight of Desire of Korean Non-Married Women-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Non-married Women in their Early Thirtie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Woo H-B (2009). The Impact of Educational Attainment on First Marriage Formation: Marriage Delayed or Marriage Forgon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2(1), 25-50.
- Yoo J-Y (2012). The Actual Condition and Tasks of Teachers' Population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2(3), 339-362.
- Yoo H-J & Hyun S-M (2010). The Effects of Economic Resources on Marriage-Delaying.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3(1), 75-101.

<국문요약>

본 연구는 30-40대 싱글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싱글여성 1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면담의 축어록을 통해 참여자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라고 언급한 진술문들만을 발췌하여 분석하였고, 수집된 자료들은 주제별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30-40대 싱글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나의 이야기', '가족 이야기', '주변 이야기' 3개의 주제로 나뉘었다. 나의 이야기로는 '통하지 않는 느낌', '내 기준에 맞는 짝이 안 보이네', '나만의 특성', '누구보다 낯 사랑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라는 5개의 소주제로 분석되었다. 가족이야기에서는 '지긋지긋 우리 집', '끈끈한 가족관계', '편안한 일상'이라는 3개의 소주제를, 주변이야기에서는 '친구들의 힘겨운 삶', '정서적 울타리', '변화하는 사회분위기'로 총 11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30-40대 싱글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였고, 인구교육의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15년 6월 2일, 논문심사일자: 2015년 6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6월 25일